

기름값 급등…고물가에 ‘기름 봇기’

광주 ℓ당 1920.98원·전남 1924.76원

9월 들어 급상승 6개월 새 최고가 근접

광주·전남지역 기름값이 9월 들어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6개월 새 최고가에 근접하고 있다.

지속적인 국제 석유제품 가격 상승이 전망돼 기름값은 추석 연휴 뒤 물가 오름세에 ‘기름’을 부을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13일 한국석유공사의 오피넷(www.opinet.co.kr)에 따르면 13일

기준 광주지역 보통휘발유 평균가격은 ℓ 당 1920.98원으로 지난 4월 8일 정유사들의 기름값 인하조치로 1918.42원을 기록한 이후 최고치에 다다르고 있다. 광주지역 보통휘발유 평균 가격은 기름값 인하 조치 전인 지난 4월 초 ℓ 당 1954원대를 기록했으나 이후 하락을 거듭, 5월 말 1882.59원 까지 내려간 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 이달 초 1714.16원에서 1721.80원으로

하다 지난달 6일 1938.20원으로 6개월 새 최고가를 찍었다. 잠시 국제 유가 하락으로 이달 초 1906.40원까지 내려갔던 기름값은 연휴기간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며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한 주유소 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제 제품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정유사들이 휘발유는 지난주보다 30원 오른 1918원, 경유는 25원 상승한 1703원으로 공급가를 올렸다”며 “국제 제품 가격이 계속 오를 전망이어서 다음주까지 추가로 10~20원 더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전남쌀 사세요”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김용복)는 13일 호남고속도로 광주요금소 상행선에서 귀경객들에게 시식용 전남쌀 1000여포(500g들이)를 나눠주며, 8년 연속 전국 12대 우수브랜드 최다 선정된 전남쌀의 우수성을 알렸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기아차 K5하이브리드 ‘세계 최고 연비’ 기네스북 등재



세계 최고 연비 기록을 달성한 K5하이브리드가 최종 목적인지인 기아차 조지아공장으로 들어서자 행사 관계자들이 환영하고 있다.

평균 연비 27.5km/ℓ

기아자동차 K5하이브리드가 세계 최고 연비를 달성, 기네스북에 등재됐다.

기아차는 13일 K5하이브리드가

지난달 26일부터 16일간 미국 48개 주(州) 7899마일(약 1만2710km)을 주행하며 평균 연비 64.6mpg(약 27.5km/ℓ)를 기록해 세계 최고 연비를 달성, 기네스북에 올랐다고 밝혔다.

K5하이브리드가 이번에 달성한

연비는 기네스가 세계 기록 달성 수치로 제시한 52.3mpg(약 22.2km/ℓ)를 크게 웃도는 것이며, 미국 고속도로 공인 연비인 40.0mpg(약 17.0km/ℓ)보다는 무려 61.5% 높다.

기아차는 12일(현지시각) 미국

기아차 조지아공장에서 드라이버 웨인 저디스(Wayne Gerdes)와 크리스 베니어스(Chris Bernius) 및 기네스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K5 하이브리드 기네스 세계 기록 인증 기념식을 열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광주·전남 추석 자금 발행 감소

지난해보다 14% 줄어

광주·전남지역 추석자금 발행액이 지난해보다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지난 9일 내놓은 ‘2011년 광주·전남지역 추석자금 발행 동향’에 따르면 추석 전 10영업일(8월 29일~9월 9일)간 광주·전남 지역에 공급한 화폐는 2830억원으로 지난해 3303억원보다 14.3%(473억원) 감소했다.

추석 연휴 기간(4일)이 지난해(3

일)보다 길었음에도 추석자금 공급 액이 감소한 것은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추석이 9월 중순이어서 기업체 금여자금 수요가 적었던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총 발행액에서 5만원권이 차지한 비중은 48.4%로, 지난 2009년 6월 최초 발행 이후 30.2%에서 꾸준히 상승했다. 1만원권은 2009년 65.6%에서 2010년 58.7%, 2011년 47.1%를 기록, 처음으로 발행 비중이 50% 이하로 내려갔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공공기관 60곳 고졸사원 550명 채용

한전 발전자회사들의 경우 동서발전이 기계, 전기, 정보통신 등 직군에서 30%를 고졸로 뽑고 남부발전과 서부발전이 각각 부산기계공고 등 3곳과 인천전자고 등 5곳의 마이스터고와 협력 양해각서를 맺은 것도 고졸자 채용 확대 흐름에 연결된 사례로 꼽혔다. 또 한전KPS·수도전기공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동아미아스터고, 생산기술연구원-마이스터고 협의회 간 협력 관계 구축도 조사됐다.

한전 발전자회사들의 경우 동서발전이 기계, 전기, 정보통신 등 직군에서 30%를 고졸로 뽑고 남부발전과 서부발전이 각각 부산기계공고 등 3곳과 인천전자고 등 5곳의 마이스터고와 협력 양해각서를 맺은 것도 고졸자 채용 확대 흐름에 연결된 사례로 꼽혔다. 또 한전KPS·수도전기공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동아미아스터고, 생산기술연구원-마이스터고 협의회 간 협력 관계 구축도 조사됐다.

/연합뉴스

국토부 SOC 예산 감소·최저가낙찰제 확대

수주 실적이 반토막나는 등 시련을 겪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중소건설사들에게 내년은 올해보다 더욱 혹독한 시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에 따른 지역 건설사들의 수주율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13일 국토해양부와 지역 건설업체에 따르면 내년 국토부의 SOC 예산이 21조원 안팎에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올해 국토부 SOC 예산인 23조1000억원에 비해 2조원 가량 줄어든 것이다.

SOC 예산은 2009년 24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23조8000억원으로 줄어든 이후 3년 연속 감소 추세다.

내년 SOC 예산 총액이 올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자 건설업체는

‘설상가상’이라며 불안스러운다.

건설사들은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예산 감소가 경기 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특히 지방 건설시장은 공공공사 물량 감소가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이 예고돼 있어 지방 건설사들은 최악의 경영난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가낙찰제가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되면 지역 중소건설업체의 수주 감소는 불가피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시공능력평가순위 1~20위 대형업체들의 토목공사 점유율은 2002년 24.4%

에서 최저가낙찰제가 3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된 2006년 31.6%, 2008년 41.2%로 크게 늘었다. 반면 200위 이하 중소업체의 토목공사 점유율은

2002년 45.8%에서 2006년 37.0%, 2007년 30.5%, 2008년 28.1%로 뚝 떨어졌다.

따라서 내년부터 최저가낙찰제가 100억원 이상 공공공사로 확대 적용되면 중소업체의 수주는 더 떨어지고, 이로인한 공사실적 감소는 입찰 참여 자격을 제한하는 악순환이 예상된다.

특히 지역 중소업체의 경우 매출의 60%를 공공공사에 의존하는 데다 토목분야는 90% 이상을 공공공사에 의존하고 있어 지방 건설업 붕괴가 우려된다.

유현 남양건설 이사는 “300억원 미만 공사는 중소업체 물량(2~4등급)으로 구분되는데, 이 공사에 10위권 업체(1등급)가 들어와 경쟁하라는 끝”이라며 “중소 건설사의 경우 비용과 물량 등에서 부담이 늘어 경영난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국산차 평균 수출 단가 1만3499달러

작년 보다 13.9% 올라…반기 사상 최고치 기록

지식경제부는 올 상반기 국산차 평균 수출 단가가 1만3499달러로 작년 같은 기간 보다 13.9% 오르면서 반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상반기 일본차 평균 수출단가(2만2387달러)의 60.2% 수준으로 일본과는 여전히 격차가 있었다. 국산차 수출 단가는 상승한 것은 품질

경쟁력이 높아지고 대형차 및 레저용 차량(RV) 등 고급 차량 수출 비중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정부는 설명했다.

지정부 관계자는 “지난 6~7월에는 미국 중대형 고급 세단 부문에서 현대차(에쿠스, 제네시스)가 총 7189 대를 팔아 6745대를 판매한 도요타 렉서스(ES, GS, LS)를 제쳤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한 서비스와 고객의 입장에서 모시겠습니다.

광주일보

개업·성업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는 —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김정열청원모밀

동구 황금동 78-9
1960년 창원모밀 창업자
대표 김정열
☎062-223-6226

국민한원

북구 일곡동 821-3 롯데슈퍼 옆 2층
광주광역시 수능언어
1등급 최다배출
☎062-574-0101

충무횟집

북구 일곡동 일곡지구 대림1차 앞 먹자골목
산지직송
자연산 활어 전문

엄마분식

북구 두암동 미리보입구 새마을금고 맞은편
식시류 및 분식류, 추어탕
삼계탕, 콩국수, 포장예약전문
대표 조권희
☎062-251-7785

동해공인중개사

광산구 장덕동 1276
동산, 부동산 매매, 임대 전문
☎062-528-1544

세창안경

동구 학동 637-122 정도프리자 건너
다초점 고급안경
컴퓨터 시스템
☎062-222-6051

피돈치즈워기호남본부

남녀지원모집(연령제한없음)
소자본으로 대리점 및 영업소
창업하실 분 상담문의
☎062-262-5613, 010-5600-5613

황제관광여행사

북구 두암동 859-9 2층 무등도서관 건너
국내·해외여행, 어권, 비자
신혼, 수학여행 등
대표 문병구
☎062-267-8580

진영소주방

북구 오치동 상설시장 apt 입구
홍아찌, 각종전문점
대표 추명순
☎062-261-8652

시골집

동구 금동 15-2
생태탕, 삼겹살, 장어탕
청국장 등
대표 조금숙
☎062-227-4565

투썸플레이스 문화전당점

동구 광산동 광주은행 남부지점 옆
커피, 음료, 샌드위치
대표 백종현
☎062-224-2388

목화웨딩

동구 블로동 169-1
웨딩그룹목화, 스마트웨딩,
웨딩미디어, 웨딩컨설팅
대표 이현희
☎062-232-3636

한마음공인중개사

북구 용전동 용전 태령간사거리
개발지구, 토지, 투자상담 전문업체
대표 주일수
☎062-576-1003

미래한방병원

광산구 쌍암동
통증, 척추클리닉, 비만클리닉,
성장클리닉, 성인병클리닉, 양·한방협진
☎062-954-1075

열린노무법인

광산구 쌍암동 694-101 한이룸 302호
노동 인적자원관리 전문기관
공인노무사 : 신규철
☎062-971-1528

똑순이 아구찜 해물찜

동구 산수동 두암타운 사거리 롯데슈퍼 맞은편
35년 전통 아구찜 명가, 아구찜·아구수
점심 특선대구탕, 단체예약순
님환영 전 메뉴 포장됩니다.
☎010-5647-0589

건강리